

영화는 문학에 빛진 매체

임상수 감독 “인간에 대한 이해는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이 필요”

소설가 황석영 씨의 장편 《오래된 정원》이 스크린을 통해 대중들을 만났다. 영화는 개봉 전부터 언론을 주목을 받았다. 메가폰을 잡은 임상수 감독의 필모그래피와 연결한 수많은 추측과 기대를 담은 기사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와 개인의 역사를 겹쳐놓고 굴곡진 1980년대 젊은 청년들의 내면과 혁명의 상흔을 드러낸 원작은 필름 속에 녹아들어 텍스트를 통해 혹은 직접 그 시간들을 살아낸 이들의 눈과 귀로 전해졌다. 상업과 예술, 양면을 충족시켜야 하는 지난한 과정,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다.



임상수 감독은 1980년대 대학을 다녔다. 자의든 타의든 인문서를 가까이 했던 세대다. 그 당시 리얼리즘 소설과 사회과학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그도 동의했다.

“지금처럼 책이 안 팔리던 시절은 아니었는데... 한국 문학계에 대해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문학 출판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1980년대에 이미 예고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80년대 주류 문단에서는 의미 있는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없이 작가, 비평가, 출판가, 언론이 서로를 보호했거든요. 자가발전을 해 온 격이죠.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들이 결국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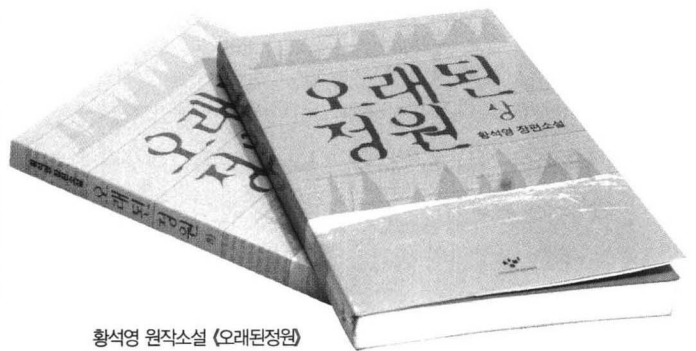
문학의 인정을 받았던 노동문학 역시 현재에는 예술적으로 의미가 바래졌다고 생각해요.”

그는 예사 독자가 아닌 듯 보였다. 몇몇 문학전문지 이름을 언급하며 최근 문단을 나름대로 진단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비단 《오래된 정원》을 영화로 만들기로 한 이유 뿐 아니라 영화에서 차용하는 텍스트 전반에 대해 물었다.

“한국이나 할리우드나 영화산업은 출판이나 문학보다 훨씬 거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소재를 빌려다 쓰는 것은 전통적인 일입니다. 주로 소설작품에서 차용하고 다큐멘터리, 르포문학 등 신문이나 잡지 기사, 실제 사건들이



영화 《오래된 정원》 한 장면



황석영 원작소설 《오래된정원》

다 소재가 되는 거죠. 매체가 틀리긴 하지만 인간에게 '감동'을 전달한다면 영화계는 그 소재를 잡아요.”

문학과 영화는 모두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다. 사회학도에서 영화감독으로 진로를 결정한 후로 그는 주로 '문학서'를 섭취했다. '영화는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을 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이 배어 있어야 하죠. 그 감각은 문학 작품을 읽어온 것이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시나리오 작가들끼리는 '한 편의 영화에 좋은 대사 10개만 있어도 그 영화는 살아남는다'고 말해요. 결국 그 좋은 대사들은 이문구 작가 소설 몇 권만 읽으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웃음) 그래서 저는 작품에 많이 빌려다 씁니다.”

이번 영화 <오래된 정원>에서도 그는 대사의 상당 부분을 소설 문장 그대로 사용했다. 원작 텍스트에 대한 부담을 논하기 전에 그는 '감독의 예술'로서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영화라는 매커니즘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어야 원작이 품고 있는 마음의 울림을 담아낼 수 있을게다. 책과 영화, 그 관계성을 밝혀보자는 성급한 질문을 받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영화 역사는 이제 100년이예요. 영화가 만들어지는 속성 자체가 거대 자본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량으로 영화를 찍어내기 시작한 것은 50년이 안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책의 역사와 비교해 보자면, 과장된 표현이 되겠지만 100년 역사의 영화 속에 꼭 봐야할 좋은 영화라는 것은 일 년 정도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 속에서 좋은 책을 찾아 읽는다는 것은 평생을 걸러도 못 읽는 분량이겠죠. 영화가 큰 자본이 오가는 현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매체인데도 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학에 대단히 많이 빚진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 감독들이라면 대개는 책을 많이 읽어요.”

촬영에 몰두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책을 읽는다는 임 감독은 영화로 만들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는 것도 감추지

않았다. 선호하는 작가들 작품이야 있지만 영화화 작업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했다. 문학작품에도 대중이 선호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작품이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마니아들을 위한 영화가 있고 소위 상업적인 영화가 있는 것이다. 독서 인구 감소, 영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객의 부재, 감독의 의중이 궁극했다.

“소설이나 영화 모두 대중을 위한, 대중과 상생하는 분야죠. 농부가 밭을 어떻게 밟아줬어요. 대중의 취향이 어떠하냐가 대전제예요. 대중의 관심이 편중되는 원인을 찾는 것은 논외예요. 한국시장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좁아요”

자신의 영화 <오래된 정원>에서 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했다. 영화에 공감한 3~40대 관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다.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현재를 말하는 것인가 했는데 아니었다.

“1980년대 변혁 운동에 참여 했다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일텐데 생활에 찌들린다고 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았어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타하러는게 아니라 현실 비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의식과 삶이 양립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류적인 가치보다는 다양한 각도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 과제입니다.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책 안 읽는 청소년들, 무거운 책을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 같아요”

감독이 말한 것처럼 아직 고급 독자, 고급 관객은 사회의 소수다. 시장이 작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겠지만 역으로 본다면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해, 소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더 적은 탓이기도 하다. **한문**